

2006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④	2	⑤	3	②	4	④	5	①	6	②	7	②	8	②
9	②	10	④	11	③	12	③	13	②	14	①	15	③	16	⑤
17	②	18	①	19	③	20	①	21	④	22	⑤	23	⑤	24	③
25	①	26	⑤	27	⑤	28	③	29	②	30	⑤	31	⑤	32	③
33	③	34	④	35	⑤	36	④	37	⑤	38	②	39	①	40	④
41	③	42	④	43	①	44	①	45	④	46	⑤	47	⑤	48	④
49	④	50	②	51	⑤	52	③	53	②	54	③	55	①	56	①
57	②	58	③	59	②	60	③								

해설

1번. 이제 국기에 대한 예절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국기는 그 나라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표상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경우에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해야 하는 날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하는데, 이때는 깃봉에서 기면(旗面)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걸어야 하지요.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태극기와 외국기를 교차하여 걸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서 보아 태극기는 왼쪽으로, 외국기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깃대를 서로 교차시키면 됩니다. 또 차량에 태극기를 꽂을 때는 앞에서 보아 왼쪽에다 꽂아 세우지요. 대부분의 의식에서 왼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파트에서 앞 베란다의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또 국가 간 행사에서 여러 나라의 국기를 함께 걸어야 할 때는 국기의 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짝수일 경우에는 맨 왼쪽에 태극기를 세우고 외국기는 그 옆에다 나라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세웁니다. 홀수일 때는 한가운데에 태극기를 세워야 해요. 그런데 만약 국제연합기와 태극기, 외국기를 함께 게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국제 관례상 국제연합기를 가장 예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짝수인 때는 왼쪽에서부터 국제연합기, 태극기의 순서로 세우고 외국기는 그 다음에다 알파벳 순으로 배치를 합니다.

1. [출제의도]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설명 내용과 부합하는 국기 게양 방법을 그림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국기 게양 방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 선택지에서 해당 그림을 찾아본다. 교사는 태극기와 여러 나라의 국기를 함께 게양해야 할 경우, 짝수일 때는 의식 행사에서 왼쪽을 중시하는 관례에 따라 맨 왼쪽에 태극기를 세우고 그 옆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국가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외국기를 세운다고 하였다. 그런데 ④는 짝수임에도 태극기를 두 번째 자리에 배치시켰기 때문에 이런 설명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계의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년간의 연구 끝에 지구 온난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남극의 빙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증거를 서남극에서 발견했습니다. 서남극의 바다 밑에 있는 해저 퇴적물을 채취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 지역의 육지를 덮고 있던 빙하가 점차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이곳 서남극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0~1800년 전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지역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퇴적물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기온이 상승했던 시기에 남극 대륙에서 빙하가 운반해 온 자갈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저에 자갈이 많이 쏠려 왔다는 것은 대륙에 빙하가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빙하 근처에만 사는 플랑크톤의 사체들이 기온이 상승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늘어났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이 과정에서 대기 중의 습기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습기가 남극처럼 찬 지역에서는 눈이 되어 내립니다. 많은 양의 눈이 쌓이면 자연히 빙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남극 대륙에서 온난화 시기에 빙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증거를 처음 발견한 것은 2년 전입니다. 미국 해밀턴 대학의 유진 도맥 교수가 동남극에서 지금으로부터 4000~6000년 전에 대륙 빙하가 바다 쪽으로 전진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의 요한센 박사도 빙하가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난기에 빙하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가설에 불과했지만,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 [출제의도] 강연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 정보를 논리적 과정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구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남극의 빙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강사는 과학계의 상식과 배치되는 이런 현상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다 음과 같다. 즉,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중의 습기가 증가하게 되고 이 습기가 남극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적설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많은 양의 적설이 빙하로 변하여 결국 극 지역의 빙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빙하 증가 과정을 바르게 정리한 것이 ⑤이다.

3번.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손자 : 할아버지, 지난 생신 때 친척 어른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 때 어른들끼리 앉으셔서 촌수(寸數)를 따지시던데, 그 촌수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할아버지 : 허허, 녀석! 이젠 제법이구나. 집안일에도 관심을 가질 줄 알고……. 음, 촌수란 말이다, 어느 친척이 자기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 멀고 가까운 정도를 계산한 숫자를 뜻한단다.

손자 : 그 촌수를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할아버지 : 그건 말이지, 혈통이 직접 이어지는 직계 가족 간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방과의 대수(代數)로 계산한단다. 예를 들어 너하구 네 아버지 사이는 1대니까 1촌이구, 너하구 이 할아버지 사이는 2대니까 2촌이 되는 것이지.

손자 : 그럼 증조할아버지와 저는 3대니까 3촌 관계겠네요?

할아버지 : 암, 그렇지. 직계가 아닌 방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방이 어떤 조상에서 갈렸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상대방의 대수를 합하면 촌수가 된단다.

손자 : 할아버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할아버지 : 그림, 이 종이에다 표를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 (사이) 자, 이 표를 한번 보거라. 네 형하구는 아버지에서 대가 갈렸지? 너하구 네 아버지는 1대고, 또 네 아버지와 형하구

도 1대니까 형제끼리는 합해서 2촌이 되는 거야. 또 할아버지와 네 큰아버지는 1대고, 할아버지하구 너하구는 2대니까 합해서 3촌 아니냐? 그러니까 네 큰아버지와 너는 3촌 간이 되는 거란다. 그럼, 잘 알아들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까? 나중에 네 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너한테는 생질이 되는데, 그 생질하구 너는 몇 촌 간이지?

3. [출제의도] 대화에서 제시되는 정보를 확인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대화 내용에 의하면 촌수는 직계의 경우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방과의 대수로 계산한다. 방계의 경우에는 자기와 상대방이 누구에게서부터 대가 갈랐는지를 알고 각각의 대수를 파악하여 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는 ‘나’와 ‘생질’과의 촌수를 묻고 있으므로 표를 보면서 먼저 ‘나’와 아버지, 그 다음 ‘생질’과 아버지의 대수를 파악하여 합한다. 이렇게 하면 각각 1대, 2대가 되므로 이를 합하면 3대, 곧 3촌 간이 되는 것이다.

4번. 이번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름은 오영철, 나이는 55세. 같은 반 아이들과 나이 차가 무려 40년이 넘는 오영철 씨를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형’이라고 부릅니다. 슬하에 2남 1녀를 둔 가장으로서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그가 자식을 출가시킬 나이에 조카뻘이 되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나이를 거슬러 굳이 정규 교육과정을 밟기로 한 것은 못다 이룬 학창 생활에 대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던 그는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던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채 장난도 한번 쳐보는 것이 그가 꼭 이루고 싶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철 씨는 오늘도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생님한테 혼이 난 친구들 어깨를 토닥여 주고, 가끔씩 시간을 내서 PC방, 노래방, 자장면 집에도 같이 갑니다. 같은 반 친구의 말을 들어 봅니다.

같은 반 학생 : “다른 사람 같으면 귀찮아하고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영철이 형은 장난을 치면서 친구처럼 대해 주어서 좋아요.”

매번 교문에 들어설 때마다 나이도 주름살도 없어지는 것 같다는 영철 씨. 하지만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오영철 : “아침에 지각해서 선생님께 벌을 받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지각하고서 아이들이랑 함께 벌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선생님들께서 막 웃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55세의 오영철 학생. 오늘도 교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가족들을 위해 택시를 몰고서 자신의 일터인 거리로 나갑니다.

4. [출제의도] 방송에서 소개하는 정보를 듣고 이를 종합한 후 인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방송에서 소개하는 오영철 씨에 대한 정보는 ‘55세의 택시 기사이고, 못다 이룬 학창 생활에 대한 꿈 때문에 늦은 나이에 중학교에 들어가 어린 학생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며, 학교가 파하면 다시 자신의 직업인 택시 기사로 돌아간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택시 기사로서의 직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며, 늦은 나이에 중학생이 되어 조카뻘 되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려 한다는 점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번~6번. 이번에는 좌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경제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서 경제 양극화의 실태를 간단히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교수(여) : 외환 위기 이후 우리 국민들 간에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고용의 측면에서도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 빈곤층의 숫자가 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데, 부자들의 소득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회자 : 김 교수님, 그럼 이 같은 양극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남) : 양극화는 경제가 세계화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입니다. 특히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사회자 : 네, 그럼 김 교수님께서서는 이 양극화 현상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 교수 : 양극화 현상이 장기화되거나 심해지면 경제의 기반이 마치 장맛비에 불어버린 토양처럼 약해져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성장이라는 건물을 세울 수 있겠어요.

이 교수 : 양극화가 심해지면 계층 간 위화감이나 사회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자녀의 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지속되면 중산층이 취약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의 해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게 이론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 교수 : 결국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겠죠. 그렇다고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 됩니다. 마른 걸레를 짜봤자 물이 나올 리도 없고요.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자영업자가 있으면 그 세금을 추징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식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교수 : 과연 그럴까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건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은 당장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시방편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계층이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분배와 성장을 조화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5. [출제의도] 두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양극화가 초래할 문제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남자 교수는 양극화가 경제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자 교수도 양극화가 지속되면 중산층이 취약해져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①이다.

6. [출제의도] 발언을 들으면서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남자교수의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에서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발언에서 남자교수는 ‘마치 장맛비에 불어버린 토양처럼

- 약해져서’, ‘성장이라는 건물’ 등의 비유를 쓰고 있다. 세 번째 발언에서도 ‘속이 뻘뻘 들여다보이는 서민들의 유리지갑’, ‘마른 걸레를 짜봤자 물이 나올 리 없다’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청자는 발언 내용을 보다 인상 깊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단계에서 세운 구상의 과정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 제시된 만화는 불신으로 단절된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 방법은 한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쌓고 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만화의 내용으로 볼 때 ②와 같은 연상은 적절하지 않다. 만화에 제시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단계에서 ‘조건’에 따라 적절한 구상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상황에서 조건에 맞게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한다. ②에서는 다른 동아리와 대비해 풍물동아리가 갖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인데, 동아리 이름의 변천 과정이 동아리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보기>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은 <보기>의 조건 중 ‘표현’, ③은 ‘자료’, ④와 ⑤는 ‘내용’에 맞게 구상한 것이다.
9. [출제의도] 글감을 활용하여 개요를 수정하고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⑥는 정보화 매체의 발달로 정보 습득이 쉬워지면서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에 해당한다. 인터넷 등의 매체로 우리가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정보들을 자기가 만들어 낸 것인 양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에 해당하지만, 이 현상을 ‘국어 규범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관련지어서 ‘정보화 시대에 국어가 훼손되는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오답풀이] ④ 개요의 ‘3’ 항목에 있는 방안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를 ㉔로 구체화하면 방안을 피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⑤ 말은 민족의 얼을 담고 있어, 말이 훼손되면 민족의 정체성 또한 훼손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국어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에 따라 글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 <보기1>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생각하며 실천하는 현재의 삶을 강조하고 있고, <보기2>는 ‘국화처럼’에서 직유를, ‘사과, 배, 감, 귤, 석류 등’에서 열거의 표현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은 ④이다. ④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한 ‘생각(반성), 실천(노력), 열정’의 열거 및 ‘건축가와 같다’는 직유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은 <보기1>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열거의 표현 기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②, ③ 직유의 표현 기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⑤ ‘미래의 나’라는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열거의 표현 기법도 활용되지 않았다.
11. [출제의도] 글쓰기 표현하기 단계에서 ‘조건’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할머니는 참깨를 털 때 너무 무리하게 빨리 두드린다면 참깨를 제대로 털어낼 수 없다(일의 결과를 그르치게 된다)며 ‘나’를 꾸중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성급히 어떤 일을 끝내고자 하는 현대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성급하게 결과를 달성하고자 하거나 과정을 소홀히 여기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①) 그런데 이

- 런 문제점의 원인으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느림’을 중시하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외면해서(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12. [출제의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초고를 적절하게 고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 ㉔에서 ‘아무리’는 주로 연결 어미 ‘-아도/어도’가 붙은 동사와 함께 호응한다. 따라서, ‘어렵지만’은 물론 ‘어려우나’도 ‘아무리’와 호응하지 않는다. ‘아무리’와 호응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을 ‘어려워도’로 고쳐야 한다.
13. [출제의도] 유의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②의 ‘백중’은 낮고 못함이 없이 비슷하다는 의미로 ‘둘의 실력이 비슷하여 백중한 경기를 펼쳤다.’ 정도의 예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 [오답풀이] ①은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하다.’의 뜻이니 ‘아버지의 눈빛과 흡사하다’를 예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③은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다.’의 예문을 적용할 수 있다. ‘방불하게’는 줄여서 ‘방블게’로 많이 쓴다. ④는 ‘식성이 유사하다’ 정도를 예문으로 쓸 수 있다. ‘유사’와 ‘흡사’는 주어진 예문으로 보면 둘 다 쓸 수 있다. ⑤는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다.’를 예문으로 적용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우리말을 표준 발음법 규정에 맞게 발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보기>에 제시된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ㄹ’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다만, ‘ㄹ-’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ㄹ-’에서 ‘ㄹ-’은 자음 앞이므로 [ㅁ]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법 규정에 맞고, [ㅁ]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ㄹ-’을 [ㅁ:]이라고 발음한 것에 ‘○’표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5~20] 시가 복합(현대시, 고전시가)
- <출전> (가) 김중길, ‘설날 아침에’ (나) 박재삼, ‘흥부 부부상’ (다) 박인로, ‘누항사’
15. [출제의도] 세 편의 시에 나타나 있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가)~(다)는 모두 화자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가)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이라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흥부 부부의 태도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 화자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정도의 빈궁한 처지에서 자연과 물아일체가 되어 지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생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두는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들이다.
16. [출제의도] 시어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㉔의 ‘꿈’은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을 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이며, ⑥의 ‘꿈’은 화자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었던, 하지만 경제적인 궁핍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작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A]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태도는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인식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②에도 세상의 모든 불평등에 대해 타인만을 탓하던 모습에서 조용히 내면을 살펴보고 좀더 넓은 마

- 음으로 이 세상을 너그럽게 살아가겠다는 시인의 내적 다짐과 태도가 나타나 있다. 화자의 긍정적·낙천적 삶의 자세가 나타난 부분이다.
- [오답풀이]** 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③ 간절한 기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④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갈망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⑤ 현실에서 느끼는 분노와 고통을 시인은 흐르는 물을 보며 씻어 버리며 삶을 반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8. [출제의도]** 시의 표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금’과 ‘황금 벼이삭’은 가난한 생황을 상징하는 ‘박덩이’와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흥부 부부가 갖지 못한 재물 즉 경제적인 풍요를 의미한다. 이 시에서 흥부 부부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기에 ‘금’과 ‘황금 벼이삭’은 흥부 부부의 사랑이나 신뢰와 대비되는 재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 19. [출제의도]** 다른 갈래로 바꿀 때의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다)에서 화자는 전원에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자급자족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 20. [출제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의 ‘파릇한 미나리 싹’은 겨울이라는 고단한 현실과 대비되는 새봄에 대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시어이다. 반면 ㉡~㉣은 모두 가난한 생활을 의미하는 ‘소박한 음식’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1~24] 인문 제재(고전 국역)
- <출전> 정약용, ‘상론(相論)’
- 21. [출제의도]** 글쓴이의 구상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상이나 큰 부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당사자가 노력을 할 때 재상이나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부수적 정보를 추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④는 잘못된 설명이다.
- 22.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서 글쓴이와 상통하는 관점을 지닌 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A] 부분을 보면 글쓴이는 ‘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이 나쁜 사람도 분야별로 필요한 뒷받침을 해 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는 용모로써 사람을 취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외모보다는 성품을 닦고 능력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가 글쓴이와 상통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은 익힌 것에 따라 상이 변한 것인데도, 이를 거꾸로 판단하여 상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 [오답풀이]** 상짬 보고 사람을 평하는 것은 허례허식에 집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고, 비판적인 인생관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②도 적절하지 않다. 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직업을 지닌 사람들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직업에 관한 편견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므로 ③도 적절하지 않으며, 세대 변화에 대한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④도 적절하지 않다.

-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비유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A]는 재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과 큰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면 성공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③의 비유가 이에 가장 가깝다.
- [오답풀이]** 생존에 필요한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①, 다른 것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본바탕은 바꿀 수 없다고 한 ②, 동일한 물건도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달리 쓰일 수 있다는 견해를 표현한 ④, 사물마다 서로 다른 고유의 역할이 있음을 언급한 ⑤는 [A]의 글쓴이의 견해와는 거리가 있다.
- [25~28] 예술 제재
- <출전> 김현준, ‘재즈를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
- 25. [출제의도]**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글쓴이는 4문단에서 베이스와 드럼의 소리에 주목하면 긴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재즈곡의 리듬이 세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재즈곡의 리듬이 세분화될 때 정서적인 긴장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진술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오답풀이]** ②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④ 4문단에 나타나 있다. ⑤ 이해의 근거가 1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26. [출제의도]** 내적 증거에 따라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글쓴이는 재즈곡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곡의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즉, 곡의 흐름이 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하면 재즈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재즈를 듣는 방법을 실제로 곡을 듣는데 적용하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들로부터 글쓴이가 <보기>의 질문에 대해 답한 내용으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③ 글쓴이는 재즈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글에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곡의 흐름을 이해하려 들지 말고’는 글의 내용에 상반되는 것이다.
- 27. [출제의도]** 글쓴이의 견해를 적절하게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글쓴이는 재즈곡의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멜로디의 상승과 하강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리듬의 변화와 썸머함에 대한 인식까지 할 수 있어야 곡의 향취를 마음으로 느끼며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⑤가 정답임을 알 수 있다.
- 28.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보기>의 I에서는 멜로디가 마지막의 정점을 향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곧 멜로디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예인 것이다. II에서는 멜로디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반복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럴 경우에 긴장과 이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III에서는 멜로디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 곧 이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29~33] 현대 소설
- <출전> 최일남, ‘노새 두 마리’(1974)
- 29.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를 시점(視點)이라 한다. 서술자는 서술을 하면서 자신의 눈만이 아닌, 등장 인물의 시선을 이용하여 인물이나 사건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순진한 눈을 가진 아이로서, 동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에 초점을 두고, 대체로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려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서술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구동네 사람들 눈을 잠시 빌려 새동네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버지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30. [출제의도] 소설의 공간적 배경의 특성과 그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곶집’은 아버지가 평소에 잘 들르지 않던 곳이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노새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술로 달래면서 앞으로 자신이 노새처럼 살겠다는 결심을 ‘나’에게 내비치는 곳이다. 따라서 인물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술로 풀어 화해를 도모하는 곳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아이는 동물원에서 노새와 너무도 닮은 아버지의 면모를 발견하고, 평생 노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존재를 새로이 발견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작품 내용을 창의적으로 변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버지의 심리는 ‘(1)돈벌이가 다소 나아진 것이 싫지 않음, (2)그러나 가족들에게 내색하고 싶지 않음’이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복합적인 심리가 내재해 있다. 즉, 돈벌이가 다소 나아진 것은 새동네 사람들 덕분이지만, 문을 걸어잠그고 구동네 사람들을 거부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조차 마음을 내색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만약 돈벌이가 나아졌노라며 내색을 하면 자존심조차 없는 사람처럼 비칠 수 있다고 보고 가족들에게조차 내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32. [출제의도]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의태어)의 쓰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매달린 물건이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야 하므로 ‘대롱대롱’이 적절하다. ‘조롱조롱’은 ‘주렁주렁’의 작은말로서,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호박이~매달리다.) 또는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팔려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답풀이】 ④ ‘닥지닥지’는 ‘때나 먼지 등이 많이 끼거나 오른 모양’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2층 슬라브집 옆에 판잣집들이 자그마하게 붙어 있는 듯 보이는 모습을 형용하여 표현한 말로 쓰였다.

33. [출제의도] 다양한 감상과 수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수용자 입장에서 작품을 다양한 각도로 감상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출제한 문항이다. 그러나 ‘열려 있는’ 감상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근거는 타당해야 한다. 의견을 제기한 학생 중 ‘나영’과 ‘다영’ 학생의 견해가 일리가 있다. ‘나영’은 노새를 잃어버린 뒤에 이제부터 자신이 노새가 되어 일하겠다는, 노새를 닮은 아버지의 독백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노새가 달아나버리고 없긴 하지만, 작품의 제목은 ‘노새’와 ‘아버지’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또한 ‘다영’은 노새가 되어 일하겠다는 아버지가 노새처럼 ‘히힃’하고 웃자, ‘나’도 ‘히힃’ 하고 뒤따라 웃는, 대곶집에서의 장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 순간은 마치 두 마리의 노새가 함께 자리하는 것처럼 비치므로 나름대로 타당한 의견이다.

【오답풀이】 ‘가영’과 ‘라영’은 각기 판단의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

[34~38] 사회 제재

<출전> 이동연, ‘블로그는 대안적 미디어인가?’

34. [출제의도] 개괄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어진 정보를 통해 다양한 인터넷 미디어들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각 미디어의 어떤 특징들이 인터넷 미디어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이해하며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적 공간은 개인 홈페이지나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가리키고, 공동의 공간은 게시판, 인터넷 카페 등을 일컫는데, 개인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공동의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간 형성의 어려움은 각 미디어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35. [출제의도] 제시된 대상의 변별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각각의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와 변별되는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다른 미디어들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⑤에서 인터넷 카페는 공통의 관심사로 다른 네티즌들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블로그와 유사한 특징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게시판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블로그에 비해 이용자들의 책임감이 약하다. ② 개인 홈페이지는 이를 운영하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을 습득해야 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블로그와 구별된다. ③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들이다. ④ 미니홈피는 블로그와 매우 유사한 공간으로 평가된다. 단지 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36. [출제의도] 합성어의 원리를 알고 이를 구체적인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밝힌 합성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와 일치하는 경우를 고른다. 부사어 ‘앞에’에서 조사 ‘에’가 생략된 채 서술어 ‘서다’와 결합한 ‘앞서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주어 ‘값이’가 서술어 ‘싸다’와 결합한 형태이다. ② 부사 ‘딱’이 생략되는 요소 없이 서술어 ‘되다’와 그대로 결합한 형태이다. ③ 목적어 ‘선을’이 서술어 ‘보다’와 결합한 형태이다. ⑤ 주어 ‘풀이’가 서술어 ‘죽다’와 결합한 형태이다.

37.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 보는 문제이다. 특정 사건에서 드러난 블로그의 기능을 통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안적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짐작해 보아야 한다. <보기>는 블로그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항하여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게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양심적인 블로거들에 의해 사실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네티즌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뜻한다.

38. [출제의도]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사적인 소통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느냐,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런 특성을 가장 잘 구별해 주고 있는 것은 사적인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장’과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모뎀 일기’라고 할 수 있다.

[39~42] 언어 제재

<출전> 이성영, ‘속담의 표현 방식’

39.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이러한 표현 효과(속담이 주는 신선한 표현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해 낼 수 있다면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한 것과, (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자 할 때, 속담을 제치 있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면 이 글의 글쓴이가 속담 활용을 통해 우리 말의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문단별로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라)에서는 ‘편자’와 ‘백구두’의 차이를 들어, 오늘날 ‘개발에 편자’보다는 ‘개발에 백구두’란 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을 뿐, 대상을 분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속담을 현대의 시대상에 맞게 패러디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은 남녀 차별적인 전근대적 의미를 지닌 속담인데, 이를 현대적으로 바꾼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는 말은 여성의 능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표현이므로, 이 경우에는 속담을 현대적으로 패러디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④, ⑤는 모두 기존의 속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의미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42. [출제의도] 어휘의 전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앞 뒤 문맥상 ㉠은 속담이 구수하다는 것이므로 ‘구수하다’의 원래 의미가 전이되어 ‘말이나 이야기 따위가 마음을 끄는 은근한 맛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택지 중에서 이렇게 전의적(轉義的)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햇별이 따가워’에서 ‘따갑다’를 본래 의미(몹시 더운 느낌이 있다)대로 사용한 ④번이다. 이 단어가 전의적으로 사용된 예는 ‘따가운 시선’, ‘따가운 질책’ 등이다.

[43~46] 고전 소설

<출전> 박지원, ‘양반전(兩班傳)’

4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양반을 ‘신선’ 같다고 여겨 양반권을 산 ‘부자’는 1차 증서에 불만을 품고 증서의 내용을 이롭게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다시 작성된 2차 증서에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로움이 나열되었는데, 2차 증서의 내용을 듣던 ‘부자’는 갑자기 증서를 중지시키고 특권을 누리는 양반을 ‘도적놈’이라고 말하며 머리를 흔들고 가버린다. 이런 극적 반전을 통해 당대 양반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44. [출제의도] 서사 전개 과정별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은 것은 양반을 경제력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부자’는 그동안 자신의 신분에 수모를 겪었고, 양반들이 누리는 신분적 특권과 이로움을 동경하여 양반의 신분을 산 것이므로, ①은 ㉠에 나타난 부자의 심리로 볼 수 없다.

45.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작가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권세와 이익을 피하지 말고,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명절을 닦는 데 힘써야 한다는, 선비가 지녀야 할 마음과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기>의 내용과 작품을 토대로 작가의 생각을 추리해 보면 ④가 정답이다.

[오답풀이] ①은 신분제도의 모순과 근대 의식, ②는 목민관의 자세, ③은 양반의 경제력, ⑤는 인재 등용에 대한 내용이므로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6. [출제의도]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섭렵(涉獵)’의 사전적 의미는 ‘많은 책을 널리 읽거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경험한다’는 뜻이다. ㉠은 ‘문사를 섭렵하여 문과 급제나 진사가 될 수 있다’는 문맥에서 활용되고 있다. 책이나 문서를 닦치는 대로 구한다는 ⑤의 풀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47~50] 기술 제재

<출전> 박진희, ‘피스톤 엔진과 로터리 엔진’

47. [출제의도] 내적 증거에 따라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화제는 로터리 엔진이 피스톤 엔진에 비해 기술적인 우위에 있었음에도 성공한 모델이 되지 못한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을 요즘 관심이 높아진 하이브리드 엔진에 적용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한 이해와는 관련이 없이 ‘로터리 엔진’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의미가 있다. 이 글을 보면 로터리 엔진의 실패 원인은 디자인과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답은 디자인 문제를 언급한 ⑤이다.

48.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Ro 80’은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오르자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단점이 부각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을 통해 불 때 연비가 높지 않은 엔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④와 같은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로터리 엔진은 질산화물 방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하였으니 적절하다. ② 로터리 엔진은 소음이 적은 엔진이니 적절하다. ③ 로터리 엔진은 구조가 간단하여 무게를 줄였다는 뜻이니 적절하다. ⑤ 로터리 엔진이 피스톤 엔진에 비해 가속이 잘 되었다고 하였으니 적절하다.

49. [출제의도]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피스톤 엔진이 견고하게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오면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너뜨리다’는 말에 어울려야 한다. 이로 볼 때 ④의 ‘아성’이 적절하다. ‘아성’은 ‘아주 중요한 근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50.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각 자료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연료가 흡기구를 통해 실린더로 들어가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이것을 압축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로터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연료를 모으고 있는 ㉡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점화 플러그 쪽에 모인 연료가 점화 플러그에 의해 폭발하는 과정을 담은 것은 ④이다. 마지막으로 배기가스를 배기구를 통해 내보내는 것은 ⑥이다. 이렇게 볼 때에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의 순서로 4행정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51~55] 희곡

<출전> 함세덕, ‘동승’

51.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친정모의 말을 통해 다른 스님의 말을 듣고 도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초부의 말을 통해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심인물인 도념은 주지의 말에 거역하고 어머니를 찾아 절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떠나는 장면에서 도념은 주지를 위해 짚을 놓기도 하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기도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도념이 주지에 대한 섭섭함을 삭이지 못한 채 절을 떠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2. [출제의도] 제시된 인물과 사건의 성격을 다른 문학 작품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고전소설 구운몽의 줄거리이다. 두 작품은 절을 배경으로 종교적 성격이 강한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문에서는 중심인물인 도념의 내적 갈등이나 외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시되며, <보기>에서는 중심인물인 성진이 팔 선녀를 만나고 종교적 삶에 대한 번민에 빠지게 되므로 ‘연정’이 갈등 형성의 계기가 된다.

53. [출제의도] 등장인물들이 사용한 설득 전략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각 인물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주장을 펴고 있는데, 특히 주지는 속세로 향하는 도념의 마음을 막기 위해 연못의 비유를 들어 말하여 도념의 두려움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②가 적절하다.

54. [출제의도] 인물의 상황이나 정서를 다른 문학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 부분에서 도념은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 있음에 대해 확신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시된 시조들 중 생존해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③은 먼 거리에 계신 아버지(부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55.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주지는 도념을 데리고 가겠다는 미망인의 말에 대해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앞부분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주지는 도념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자신의 뜻을 어기려는 미망인을 불쾌하게 여기는 행동이 ㉠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색을 하며’가 가장 적절하다.

[56~60] 과학 제재

<출전> 김충섭, ‘로슈가 들려주는 조석 이야기’

56. [출제의도] 글에서 제시된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미루어 알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질량이 큰 태양의 조석력보다 달의 조석력이 큰 것은 달이 태양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석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하루가 길어진다. 이는 지구의 자전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석은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고, 매일 50분씩 늦어지기 때문에 조석(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시간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석력은 계절과 상관없이 달의 위치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글에서 조석력을 계절과 연계시켜 설명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①은 적절하지 않다.

57. [출제의도]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내용 전개상 특징을 찾아보는 문제이다.

2문단에서 조석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5문단에서 달의 공전 반경이 3.8cm씩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조석이 발생하는 원인이 조석력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6문단에서 달에 의한 조석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상이한 두 현상인 ‘사리’와 ‘조금’을 설명하여 조석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유추를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하지는 않았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58. [출제의도] 글에서 제시된 정보를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리’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그믐(A)과 보름(C)에

일어나고 ‘조금’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직각 상태에 놓이는 상현(B)과 하현(D)에 일어나므로 ③이 달의 위치 변화에 따른 조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59. [출제의도] 어휘를 어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울다’는 어간(기울)이 ‘ㄴ’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이므로 명사형이 ‘기울+ㅁ’ 즉, ‘기웁’으로 활용된다. ‘삶, 앓, 만듭, 베풀’ 등도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이는 어휘이다.

60. [출제의도] 작품에서 제시된 세부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의 공전 주기(속도)와 지구의 자전 주기(속도)가 같아지면 달이 항상 떠 있는 지역과 뜨지 않는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구는 항상 같은 부분만 달을 향하게 되므로 ③이 정답이다.